5.9 대선 문제풀이

- '성공하는 정부'를 위하여

이진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1 5.9 대선 수수께끼 ····· 1

- 득표의 수수께끼
- 지지도의 수수께끼
- 정당체제의 수수께끼

2 5.9 대선의 룰 ····· 6

- 1부 리그, 2부 리그
- 1부 리그의 전반전, 후반전

3 5.9 대선 유권자 산수 ····· 10

- 문제는 부동층
- 해법은 확장력

4 5.9 대선의 공식 ····· 20

- 나라다운 나라 + 든든한 대통령 = 성공하는 정부

5.9 대선 문제풀이 - '성공하는 정부'를 위하여

이 진 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1. 5.9 대선 수수께끼

○ 5.9 대선 결과에 대한 해석
-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촛불혁명의 사필귀정과 촛불민심의 우여곡절이 중첩, 5.9 대선 결과는 당연한듯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수수께끼
- 5.9 대선 결과의 두 얼굴에 주목해야.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점이자 약점이고, 민주당의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음
- 문재인 후보 지지자에게 5.9 대선 결과는 압도적 격차의 압승이었고,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의 1강 구도였고, 민주당 우위의 협치 체제의 출현일 수 있음
- 그러나 반대자에게 문재인의 승리는 40% 대통령일 뿐이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급격한 지지도 변동이 있었고, 무너진 보수진영이 재건된 대선으로 볼 수 있음

❑ 득표의 수수께끼

○ 압도적 격차
-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는 승패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어떤 격차로 승리할지에 관심. 문재인 후보는 압도적 격차로 당선
- 2007년 이명박 후보 이후 2번째로 큰 격차로 승리. '또 다른 10년의 시작?'

○ 대세론 확인
- 문재인 후보(41.1%)와 2위 홍준표 후보(24.0%)의 득표율 격차는 17.1%
-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48.7%)와 2위 정동영 후보(26.1%)의 격차는 22.6%
- 이번 대선 투표율(77.2%)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기정사실로 인식된 2007년 대선(63.0%)보다 훨씬 더 높았을 뿐 아니라 박빙의 대결구도였던 지난 2012년 대선(75.8%)보다도 더 높았음

❍ 40% 대통령

-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던 촛불혁명, 이로 인한 여권의 궤멸, 강력한 경쟁후보의 부재 등 절대적으로 우호적인 조건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과반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음
-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50년 수구냉전 집권체제의 강력한 비토에 직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1997년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40.3%)과 유사. '제2의 DJ?'

❑ 지지도의 수수께끼

❍ '어대문'

- 문재인 후보는 촛불혁명이 폭발한 이후 단 한 번도 지지도 선두를 내준 적이 없었던 안정적 1위 후보
- 이번 대선은 문재인 vs 反문재인의 사실상 1강 구도, '확장적 대세론.' 10%대 중반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지지도 상승. 박스권으로 여겨졌던 '마의 30%' 돌파. 본격 대선국면에서 40% 또한 돌파

❍ 확장적 대세론

-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는 촛불혁명 이전 2016년 내내 10%대 중반 유지
- JTBC 최순실 태블릿 보도 직전 10월 2주차에서 문재인 후보는 반기문에 이어 2위. 문재인 18%, 반기문 27%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될 무렵인 12월 2주차에서 처음으로 20%대 진입. 문재인 20%, 반기문 20%, 이재명 18%
- 문재인 후보는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과 특검의 본격적인 활동성과가 나타난 1월 2주차 30%대 진입. 문재인 31%, 반기문 20%, 이재명 12%
- 민주당 후보 선출이후 적폐청산에서 대통합으로 노선을 전환한 4월 2주차에 40%대 진입. 문재인 40%, 안철수 37%, 홍준표 7%, 유승민·심상정 3%. (한국갤럽 여론조사)

❍ 급격한 지지도 변동

- 안정적 1강 구도의 이면에서 문재인 상대 유력 도전자가 수시로 교체 출현. 촛불혁명의 신주류는 광화문 중심의 빅 텐트에 거주하는 '촛불 정주민'과 함께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 수시로 텐트를 치는 '촛불 유목민', 촛불 부동층
- 지지도 급상승의 주인공이 이재명, 안희정, 안철수, 홍준표로 급변

❍ 급변하는 지지도

- 12월 2주차, 전국적 촛불집회의 한복판에서 이재명 지지도 급상승. 8%에서 18%로 급등. 문재인(20%)의 옆에 섰음
- 2017년 2월 1일 반기문 대통령 불출마 선언이후 안희정 지지도 급상승. 2월 3주차 22%
-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3월 5주차부터 안철수 지지도 급상승
- 4월 1주차부터 문재인(38%) vs 안철수(35%) 양강 구도 형성. 양자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승리 여론조사까지 등장
- 대선후보 TV토론이후 '안철수 태풍'이 꺼지자 한자리수 지지도의 홍준표 후보 지지도 상승. 24.0%의 득표로 2위 기록. (한국갤럽 여론조사)

❑ 정당체제의 수수께끼

❍ 협치 체제의 가능성

- 촛불민심을 반영, 국회탄핵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대선후보들의 득표율의 합 또한 압도적 다수
-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진보세력 또는 야당만으로 불가능한 '협치'의 승리
- 탄핵에 찬성했던 대선후보들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 특히 민생·개혁 공약은 유례없이 유사. 협치 체제의 출현 가능성
- 특히, 제1야당 민주당 지지도의 지속적인 압도적 우세. 촛불혁명과 대선과정 내내 민주당의 사실상 1당 체제

- 민주당은 '자연스런 집권당'이라는 인상.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트리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의 지지도 합이 60%에 달했음

❍ 탄핵 협치 체제
- 국회탄핵 표결에서 78%인 234명이 찬성. 반대는 56명에 불과
-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의 득표율 합 또한 75.5%

❍ 민주당 1당 체제
-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전, 민주당은 20%대 중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30%대 초반 지지도 유지
- 11월 1주차부터 민주당 지지도는 30% 돌파. 새누리당은 10%대로 추락.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5% 이하로 폭락
- 민주당은 12월 3주차부터 40%대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40%대 유지
- 경선국면에서 민주당 트리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의 지지도 합이 60%에 이르자 민주당 지지도 또한 40%대 중반에 이름
- 본격적인 대선운동기간에 약간 떨어졌지만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지 못했음. (한국갤럽 여론조사)

❍ 대치 체제의 재등장?
- 새누리당의 분당과 처참한 지지도 속에서 사실상 '탄핵반대정당', 자유한국당이 잿더미 속에서 대선후보 득표율 2위 정당으로 부활
- '우파 본류', 자유한국당이 보수진영의 차기 대표 경쟁에서 합리적 보수정당, 바른정당을 압도함으로써 반사이익의 진영대결이 복원된다면 극단적 대치 체제가 재등장, 대한민국이 또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

❍ '탄핵반대정당'의 부활
- 촛불민심에 짓눌려 박근혜 대통령을 '향단이'로 비판했던 홍준표 후보는 본격적 대선국면에서 박근혜 사면을 약속하고 진박핵심의 징계를 해제하는 등, 탄핵반대정당의 맨 얼굴을 드러냈음에도 대선 결과, 자유한국당은 보수진영 대표정당으로 부활
- 헌재 탄핵심판과 함께 본격화된 자칭 '태극기 집회'는 새누리당의 혁신을 봉쇄, 보수정당의 퇴행 영속화
- 새누리당은 결국 분당, 탄핵찬성세력은 바른정당 창당, 탄핵반대세력

은 자유한국당으로 개명, 불임정당화
- 자유한국당은 10% 내외의 처참한 지지도 지속. 반기문, 황교안 불출마 선언이후 '홍트럼프'를 자처한 '결격사유 많은 부끄러운 후보' 홍준표를 사실상 추대
-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 파산을 걱정했던 자유한국당이 선거운동 막판에 고정 지지층 복원, 탈당했던 의원 13명이 복당하는 등, 부활. "무너진 당을 재건하는데 만족(홍준표)"

2. 5.9 대선의 룰

❍ '두 개의 운동장'
- 5.9 대선은 정권교체 vs 정권연장의 진영논리에 근거한 여야의 '단일 운동장'이 아니라
-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정권교체의 적임자를 결정하는 운동장과 차기 야권대표를 겨루는 운동장으로 분리된 '두 개의 운동장'
- 이번 대선은 진보 vs 보수의 진영논리에 근거한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 4.13 총선에서 야권의 분당, 이번 촛불혁명에서 여권의 분당으로 부동층이 대규모로 발생,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지자가 선택하는 1부 리그의 운동장과 탄핵 반대자가 모여 있는 2부 리그의 운동장으로 분리된 '두 개의 운동장'
- 51 vs 49의 진영 대결이 아니라 탄핵에 찬성한 80의 1부 리그와 반대한 20의 2부 리그, 부동층으로 가득 찬 '두 개의 운동장'
-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룰은 완전히 다름. 대권을 목표로 하는 1부 리그에서는 부동층에 대한 '확장력'을 겨루는 '공감'의 룰이 승패 결정
- 야권대표를 결정하는 2부 리그에서는 고정 지지층에 대한 '동원력'을 겨루는 '존재감'의 룰이 승패 결정
- 5.9 대선은 2012년 대선, 박근혜 vs 문재인의 양대 진영대결, 일차원적 구도가 아니라 2007년 이명박 vs 박근혜의 사실상 결선인 예선 1부 리그와 정동영 vs 문국현의 2부 리그로 분절된 구도와 유사
- 다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과 여권의 궤멸, 재보궐 대선의 시급성으로 인해 1부 리그와 2부 리그가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이 다름

❑ 1부 리그, 2부 리그

❍ 1부 리그

- 대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는 1부 리그. 5.9 대선 1부 리그의 특징은 정권교체 vs 정권연장를 놓고 겨루는 여야 진영대결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 여권 궤멸로 인해 정권교체가 확정된 상태에서 정권교체 적임자를 뽑는 대선
- 고정 지지층을 가장 많이 확보한 부동의 1강, 문재인 후보에 대한 유력 도전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1부 리그
- 1부 리그는 고정 지지층 동원력이 아니라 최대 관중인 '촛불 부동층'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확장력을 겨루는 경기. '촛불 부동층'의 선택이 승패 결정
-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은 단순히 고정 지지층을 다지는 대세가 아니라 30% 박스권의 '저주'를 돌파하고, 40%대까지 진입할 수 있었던 '확장적 대세'
- '촛불 부동층'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촛불에 공감하고, 탄핵에 찬성하지만 아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지 못했던 다수의 보통사람
- '촛불 부동층'은 단순 무당층을 넘어 새누리당을 지지해 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구여권 부동층, 촛불혁명에 함께 하지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을 지지하는, 나아가 문재인 후보 이외의 민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야권 부동층으로 구성

❍ 2부 리그

- 정권교체가 기정사실이 된 상태에서 차기 야권대표를 겨루는 구여권의 2부 리그. 反문재인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대표주자를 뽑는 축소지향의 대결
- 박근혜의 '막장'과 '염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명시적으로 반대했거나 박근혜의 사면을 바라면서 침묵했던 '태극기 부동층'이 2부 리그 우승자 결정. 친박정당은 2부 리그의 자연스런 대표

- ‘태극기 부동층’은 구여권의 고정 지지층이지만 정권교체 유력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진보정당 지지층처럼 사표방지를 위해 反문재인 유력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부동층
- 한자리수 지지율의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에 이길 수 있는 1부 리그 유력 후보가 없다면
- ‘태극기 부동층’은 원래의 자기 성향에 따라 2부 리그 대표정당, 친박정당에게 몰표. 막판 ‘어대문’, 확실한 1강 구도 속에서 홍준표 후보의 급부상은 필연

❑ 1부 리그의 전반전, 후반전

❍ 전반전
- 적폐청산은 박근혜 게이트의 폭로와 함께 폭발한 촛불혁명, 1부 리그 전반전의 대표 슬로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촛불민심
- 분노를 넘어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던 박근혜 대통령의 끝 모르는 ‘후안무치’는 민심의 역린. 탄핵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은 상식을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보통사람의 ‘평정심 찾기 운동’
- 보수언론은 물론 종편조차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던 박근혜 게이트. 언제나 양분되어왔던 보수 vs 진보의 언론 양극화가 ‘대한민국 일천년래 대사건’을 계기로 대통합
-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두고두고 흥행 스토리 소재가 될 박근혜의 ‘막장’과 압도적 민심에 직면해 이승만도 하야하고 전두환도 6.29 선언으로 굴복, 독재정권 시대에도 못했던 것을 민주주의 시대에 역주행하는 박근혜의 ‘염장’
- 박근혜의 ‘막장’과 ‘염장’이 더 할수록 제1야당 민주당이 ‘자연스런 집권당’으로 부상, 민주당 자체가 1부 리그, 민주당 트리오의 지지도 합이 60%에 달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님
- 촛불이 더 할수록 문재인과 함께 ‘사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도가 급상승한 것 또한 우연이 아님

○ 후반전

- 국민을 열받게 하고 어이없게 했던 박근혜의 구속, 각 당의 대선후보 선출과 함께 후반전 시작. 과거심판의 전반전에서 미래선택의 후반전
- 문제는 적폐청산의 방법. 가시적인 '적폐 상징'의 구속으로 어떻게 적폐를 해소할 것인지가 관심사.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빅 퀘스천에 대한 응답,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대통합과 대탕평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름
- 대화와 타협은 정치의 기본. 정치를 정쟁화함으로써 정치의 기본을 파괴,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혐오를 유발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속화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자체가 적폐
- 민주당 경선에서 '대연정'의 화두를 던진 안희정의 지지율 급상승은 이를 반영
- 촛불혁명 당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한자리수 지지도에 머물렀던 안철수 후보가 대탕평으로 전환하면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공식화하자 뜻밖의 양강 구도 형성
- 전반전이 민주당 중심의 적폐청산 대표자를 뽑는 경기였다면 후반전은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하면서 협치의 대통령, 대통합과 대탕평의 적임자를 찾는 본격적인 대선 운동기간

○ 일방적 컨벤션 효과

- 촛불혁명에 기름을 붓는 박근혜의 역주행이 가속화되면서 적폐청산의 전반전에 '자연스런 집권당' 민주당 자체가 흥행성 최고의 1부 리그. 따라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촛불 부동층 또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
- 이것이 문재인 후보 지지도 30%, 민주당 지지도 40%, 민주당 트리오 60%의 비밀
- 박근혜가 구속되고 각 당의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자 문재인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한자리수 지지도의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 양강 구도를 형성
- 일방적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20%의 비민주당 촛불 부동층과 10%의 '홍찍문'(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태극기 부동층이 안철수 후보에게 몰렸기 때문

- 문재인 독주구도에서 예상 밖 양강 구도 형성.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는 무엇보다 당을 통합하여 촛불혁명기간 확장된 민주당 지지도 40%를 온전히 확보해야 했고, 대통합을 통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 소속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부동층의 신뢰를 얻어야 했음
- 비민주당 촛불 부동층으로 지지를 확장하는 것이 사활적인 상황에서 대통합은 필수적 요구. 더욱이 박근혜의 퇴장과 함께 적폐청산은 가시적 목표를 상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빌미로까지 기능

3. 5.9 대선 유권자 산수

❍ 5.9 대선과 4.13 총선
- 이번 5.9 대선의 '두 개의 운동장' 구도는 작년 4.13 총선과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지 매우 유사
- 4.13 총선은 여 vs 야 또는 진보 vs 보수의 진영간 대결이 아니라 여당의 총선 압승과 야당의 참패 예상 속에서 여권 분열과 야권 분당으로 부동층이 매우 많았던 여권 운동장과 야권 운동장으로 분리된 4자 진영내 대결
- 총선승리를 기정사실로 자만, 진박 vs 비박의 여권내 경쟁인 1부 리그와 총선참패를 전제한 민주당 vs 국민의당의 야권내 각자도생인 2부 리그로 분절
- '진박역풍'으로 새누리당의 예상 밖 대참패. 새누리당 지지를 철회한 여권지지 부동층이 대규모로 이탈, 국민의당 지지. 야권지지 부동층은 특히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높았던 민주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 정당은 국민의당, 정의당을 지지했지만 후보는 민주당을 찍은 분할 투표(split-ticket voting)
- 작년 4.13 총선은 이번 대선 직전의 전국적 선거였고 동일한 구도. 따라서 작년 총선의 정당득표율은 이번 대선결과 평가의 유효한 바로미터

❑ 문제는 부동층

❍ 후보결정 시기에 따라 부동층 규모

(표1) 성향별 후보결정 시기

(단위 : %)

후보결정시기	전체	보수	중도	진보
투표당일	15.8	14.1	16.1	14.5
1~3일전	13.3	14.4	15.5	8.8
일주일전	22.6	24.8	22.8	19.2

자료 : 방송3사 출구조사

- 후보결정 시기에 따라 부동층 규모를 파악하면 전체적으로 29.1%. 투표당일에 지지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는 15.8%. 1~3일전에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는 13.3%였음
- 일주일 전에 지지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간주하면 전체 부동층 규모는 51.7%에 달함. 일주일 전에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는 22.6%였음
- '촛불 부동층'과 '태극기 부동층'을 합한 규모(40.8%)는 일주일 전에 지지후보를 결정한 유권자까지 상당부문 포함
- 이번 대선결과는 자명했던 것이 아니라 최대 50%, 최소 30%에 달하는 부동층의 민심을 누가 얻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불확정 선거. '문제는 부동층'

❍ '촛불 부동층'

- 11.5% + 14.3% = 25.8%
- 촛불혁명에 공감하고 탄핵에 찬성했지만 본격적 대선 국면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 '촛불 부동층'의 규모는 25.8%
- '촛불 부동층'은 '정권교체 민주당지지 부동층'(11.5%)과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14.3%)으로 구성

❍ '여당지지 부동층'의 계보

- 우리나라 대선의 기본특징은 여당지지 부동층에 의한 정권심판. 여당에 대한 지지철회 선거
- 여당지지 부동층은 지난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실망해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로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스윙보터

- 여당지지 부동층이 대선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빼앗아 우리 지지층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우리 지지층을 동원하는 것에 비해 2배의 효과가 있다는 점. 우리 지지층을 동원하면 플러스 1표, 상대 지지층을 설득, 확장하면 플러스 2표
- 더욱이 지난 2012년 대선의 투표율이 75.8%로 높고, 2030은 물론 40대에서도 승리했는데도 패배. 가일층적 고령화 속에서 박근혜 콘트리트 지지층으로 알려진 5060에서 여당지지 부동층을 상당부분 빼앗아오지 않는다면 패배한다는 것이 자명
- 여당에 대해 지지를 철회, 기권하거나 야당을 지지하는 여당지지 부동층의 규모는 대략 25%. 이 25%의 여당지지 부동층의 향배가 대선 승패 좌우
- 한국정치 두 주류정당, 새누리당 계열 후보의 고정지지층은 30%(홍준표 후보 24.0%, 유승민 후보 6.8%), 민주당 계열 후보의 고정지지층은 25%(2002년 대선 정동영 후보 26.1%). 충청·강원권 등 보수경향 지지층 10%, 진보정당 또는 새정치지지 진보경향 지지층 10%

① 'MB 민주당원'

- 정권교체가 확실시 되었던 2007년 당시 야당, 한나라당 후보의 평균 지지도 합은 무려 65%, 이명박 후보 40%, 박근혜 후보 25%
- 2007년 대선에서 25%에 달하는 거의 모든 여당지지 부동층이 이명박 후보에게 몰표. 이회창 후보가 박근혜를 지지했던 15%의 보수경향, 새누리당 고정지지층을 빼앗아갔음에도 여당지지 부동층을 싹쓸이함으로써 48.7%로 압승
- 여당지지 부동층 중, 10% 정도는 수도권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새천년민주당의 분당과 이후 국정실패 속에서 여당에 실망해 이명박 후보를 찍었던 'MB 민주당원'

②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 2012년 대선에서 MB에게 몰표를 주었던 25%의 여당지지 부동층 중, 10%는 여전히 박근혜 후보지지. 이 10%가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 2012년 내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60~70%에 달했지만 '발목잡기' 야당견제에 대한 공감도 또한 60%에 이르렀음. 무

엇보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가 정권교체라는데 공감하는 유권자가 50%에 이르렀음

※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명박 정권이 재창출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정권교체(50.1%)'가 '정권재창출(34.6%)'보다 많았고, '모름·무응답'은 15.3%였음. 박근혜의 대선 승리를 정권교체로 보는 견해는 한나라당 지지층(53%)과 민주당 지지층(52.9%)이 비슷했음(2011. 6. 13. 조선일보, 미디어리서치)

- 2002년 대선구도가 보수 vs 진보의 양자택일 진영대결 구도였고 40%의 보수진영 기본지지층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면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10%를 더해 51.6%로 당선
- 문재인 후보는 'MB 민주당원'을 포함, 여당지지 부동층 15%를 얻었지만 부동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진보진영의 기본적 지지층의 한계로 석패

③ '촛불 부동층'

- 이번 5.9 대선의 승패를 결정했던 핵심 부동층 집단 역시 25%. 이중 10% 정도는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아직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정권교체 민주당지지 부동층', 이들은 기본적으로 야권지지 부동층
- 여당지지 부동층 25% 중, 10%는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새누리당의 기본 지지도가 총선전 40%에서 총선참패 후 30%로 10% 하락
- 이들은 작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 국민의당을 지지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참패를 가져왔던 '진박역풍 국민의당지지 부동층' 10%. 기본적으로 안철수 지지층으로 추정
- 15%는 작년 총선에서도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했지만 촛불혁명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

① 정권교체 민주당지지 부동층

- 37.0% - 25.5% = 11.5%
- 정권교체 민주당지지 부동층 규모(11.5%)는 작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얻었던 지역구 후보득표율(37.0%)에서 비례대표 정당득표율(25.5%)을 뺀 값
-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 상실로 야

권지지 부동층이 민주당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

- 작년 총선 당시 정당은 정의당을 지지했지만 후보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정의당지지 야권부동층은 5.6%. 이는 정의당의 정당득표율(7.2%)에서 지역구 후보득표율(1.6%)을 뺀 값
- 작년 총선 당시 정당은 국민의당을 지지했지만 후보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의당지지 야권부동층은 5.9%.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더 얻은 후보득표율(11.5%)에서 정의당지지 야권부동층을 뺀 값(5.6%)
- 정권교체 민주당지지 부동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만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문재인)'를 선택할지, '더 나은 정권교체(안철수)'를 선택할지, '진정한 정권교체(심상정)'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던 야권지지 부동층

②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

- 38.3% - (18% + 5% + 1%) = 14.3%
-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의 비율(14.3%)은 작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지역구 후보득표율(38.3%)에서 '태극기 집회'가 활성화된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3월 1주차 시점의 탄핵반대 비율(18%), 모름/응답거절 '샤이보수' 비율(5%)과 탄핵에 찬성한 유승민의 당시 지지율(1%)을 뺀 값. (한국갤럽 여론조사)
-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이 폭로하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선참패 속에서도 여전히 30% 초반 지지도 유지. 촛불혁명 발발과 함께 새누리당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 '박근혜 찍은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다.'

❍ '태극기 부동층'

- 10% + 5% = 15%
- '태극기 부동층'은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탄핵반대 反문재인 부동층(10%)'과 박근혜에 대해 여전히 '짠한 마음'이 있지만 창피해서 응답을 거부하는 '샤이 보수(5%)'로 구성
- '태극기 부동층'은 '어대문'을 깨뜨릴 수 있는 유력 후보를 찾는 '홍찍문' 부동층. 탄핵에 반대하거나 응답을 거부하고 있는 보수진영

고정 지지층으로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부동층 규모는 15%

① 탄핵반대 反문재인 부동층
- 18% - 8% = 10%
- 탄핵반대 反문재인 부동층의 비율(10%)은 헌재 판결을 앞둔 당시 탄핵반대 비율(18%)에서 황교안의 지지율(8%)를 뺀 값. 황교안의 지지층은 이후 홍준표 지지로 이동했다고 추정

② 샤이보수
- 5%
-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탄핵은 너무 했다고 느낌,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하고 있는 보수진영 고정 지지층(5%)

❑ 해법은 확장력

○ '확장력'의 계보

① '경제 대통령'
-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참여정부 시기, 민생의 실질적 개선을 도외시한 극한 대결의 정치에 염증을 느낀 부동층을 겨냥
-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 버스 시스템 개혁 등 실적을 앞세우고 '국민성공시대'를 만드는 '경제 대통령', '중도실용'을 실천하는 '일하는 대통령' 어필, 여당지지 부동층을 싹쓸이

② '준비된 여성 대통령'
- 박근혜 후보 또한 MB 심판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2년 대선에서 여당지지 부동층의 야당 몰표를 저지하기 위해 '따뜻한 육영수'와 '유능한 박정희'의 이미지를 동시에 어필하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된 여성대통령'으로 분장, 10%의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획득
- 박근혜는 참여정부 시기, 민주화 이후 최장 장외투쟁을 이끄는 등 극단적 정치 지도자 이미지 세탁. 이명박 정부 시절 대운하, 종편,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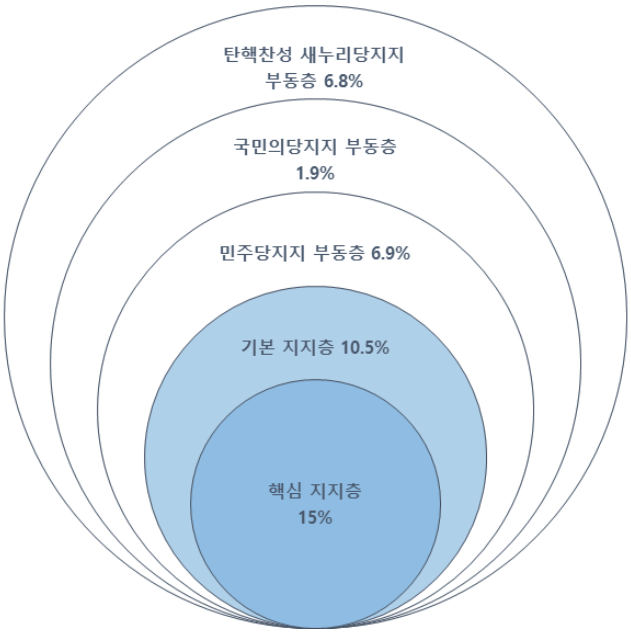
시, 한미FTA 등 양자택일 대결의 정치에서 박근혜와 친박은 조정자로서 사실상의 '책임있는 야당'이라는 인상. 이명박 정부와 자연스럽게 차별화하면서 '친노 심판론' 제기

③ '든든한 대통령'
- 문재인 후보는 촛불혁명의 '이게 나라냐'는 빅 퀘스천에 대해 '나라다운 나라'로 응답한, 민주당 정부의 '든든한 대통령' 자임. 민주당 기본 지지층과 더불어 '촛불 부동층'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음

❍ 문재인 표의 패치워크
- '촛불 부동층'(25.8%)과 '태극기 부동층'(15%)을 합한 전체 부동층이 40.8%에 달하는 유동적 상황에서 고정 지지층 동원에 집착하는 것은 필패. '문제는 부동층'. '해법은 확장력'
-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는 점증적으로 확대. 문재인의 대세론은 '단계적 확장력'. 촛불혁명 이전 10%대 중반에서 12월 초순부터 20%대 진입, 1월 중순부터 30% 박스권 돌파, 본격 대선국면인 4월 중순에 40% 안착
- 1단계는 문재인 후보 개인의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민주당 고정 지지층으로 확장함으로써 20%대 안착, 2단계는 정권교체 민주당지지 부동층 및 국민의당지지 부동층으로 확장함으로써 30%대 진입, 3단계는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으로 확장함으로써 40% 달성
-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의 전반전에 민주당 고정 지지층과 함께 '정권교체 민주당지지 부동층'으로 확장. 국민통합의 후반전에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으로 확장. '확장적 대세론' 증명
- 문재인 후보의 득표는 고정 지지층과 부동층의 다양한 조각이 결합된 '지지층의 패치워크'. 문재인 지지기반은 색깔이 다른 가죽 조각으로 연결된 수축과 확대가 가변적인 탄력성 있는 축구공
-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촛불 부동층'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확장력에 기인.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에서 부동층의 표는 15.6%로 전체 '촛불 부동층'(25.8%)의 절대 다수 지지를 얻었음
- 특히 정권교체 민주당지지 부동층의 절반을 차지했던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정권교체가 기정사실이 된 상태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지지 부동층을 더 흡수함과 더불어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승리

(그림1) 문재인 후보 득표의 구성



① 문재인 핵심 지지층
- 15%
- 촛불혁명 이전 작년 내내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대략적 지지도로서 문재인 후보 개인의 핵심 지지층, '친문 핵심 지지층'

② 문재인 기본 지지층
- 25.5% - 15% = 10.5%
- 문재인 기본 지지층(10.5%)은 작년 총선에서 얻었던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득표율(25.5%)에서 '친문 핵심 지지층'(15%)을 뺀 값
-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 지지층 값. 전국적 선거에서 민주당의 고정 지지기반이 25%
- 2002년 대선에서 부동층을 전부 상실했던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26.1%)과 유사

③ 정권교체 민주당지지 부동층

- 11.5% - 4.6% = 6.9%
-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정권교체 민주당지지 부동층(6.9%)은 작년 총선에서 얻은 민주당지지 부동층, 정당은 다른 정당을 찍었지만 후보는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11.5%)에서 심상정 후보 지지로 이탈한 정의당지지 부동층(4.6%)을 뺀 값
- 심상정 후보로 정권교체 민주당지지 부동층이 이탈한 이유는 양강 구도에서 1강 2중 구도로 전환,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된 막판 대선 국면, '어대문'이 확정된 상황에서 진보정당 지지자의 소신투표를 이끌었던 '역사표론' 작동 결과

④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

- 41.1% ÷ 16.6% = 6.8%
- 문재인 후보가 얻은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6.8%)은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41.1%)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16.6%)로 도출한 값
-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인 것으로 추정
- 이들은 주로 수도권에서 정의당지지 부동층의 이탈을 보충하고, 영남과 강원의 동부권 새누리당 지지기반에서 새로 얻은 부동층으로 가정할 수 있음

❍ 4.13 총선과 5.9 대선 연령대별 민주당 득표율

(표2) 민주당의 4.13총선 정당득표율과 5.9대선 득표율 비교

(단위 :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4.13 총선	41.6	39.5	30.8	19.6	11.7	
5.9 대선	47.6	56.9	52.4	36.9	24.5	22.3

자료 : 방송3사 출구조사

- 작년 4.13 총선 민주당 정당득표율에 비해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20대에서 6%로 소폭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에서 17.4%, 21.4% 증가한 56.9%, 52.4%의 압도적 1위

-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알려진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두배 정도 득표율을 크게 올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즉 새누리당을 지지해왔지만 탄핵에 찬성한 '탄핵찬성 새누리당 부동층'의 다수를 확보
- 50대에서 문재인 후보는 36.9%로 드디어 1위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에서도 2배 이상 득표율을 끌어올려 60대에서는 24.5%로 안철수 후보를 약간 앞선 2위, 70대 이상에서는 22.3%로 안철수 후보에 간발의 차로 뒤진 3위의 득표율을 기록했음

⑤ 국민의당지지 부동층

- (4.1% + 4.6%) - 6.8% = 1.9%
- 문재인 후보가 새로 얻은 국민의당지지 부동층(1.9%)은 작년 총선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 대비 더 많이 얻은 문재인 후보의 득표(4.1%)와 이번 대선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진보정당 이탈층(4.6%)의 합(8.7%)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6.8%)을 뺀 값
- 즉, 태극기 부동층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문재인 후보가 탄핵찬성 새누리당지지 부동층을 제외하고 새로 얻은 지지층은 주로 재향호남인,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국민의당지지 부동층

❍ 안철수 후보 득표의 구성

- (60% - 41.1%) + 9% - 6.8% = 21.1% ≒ 21.4%
- 반기문의 대선불출마 선언이후 부동층이 급증, 안희정의 지지율이 급등했던 2월 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 안철수 후보 득표율(21.4%)은 당시 민주당 트리오(문재인 33%, 안희정 22%, 이재명 5%)의 지지율 합(60%)에서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비율(41.1%)을 제외하고 안철수 고정 지지층의 비율(9%)을 더하고 여기에 유승민 득표율(6.8%)을 뺀 값(21.1%)과 유사
- 안철수 후보의 득표의 구성은 홍준표 후보가 태극기 부동층을 모두 흡수한 상황에서 주로 반기문을 지지했고, 이어 안희정을 지지했던 '촛불 부동층'으로 간주해야.
- 방송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투표자의 82.1%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자였음

- 반기문을 지지했던 '태극기 부동층'은 황교안(9%) 지지로 이동했던 것으로 간주. 이들은 황교안의 불출마 선언이후 홍준표 후보 고정 지지층

❍ 홍준표 후보 득표의 구성
- 18% + 5% = 23% ≒ 24.0%
- 태극기 집회가 대중화된 헌재 탄핵심판 최종심판을 남겨둔 3월 1주차 시점의 탄핵반대자(18%)와 응답을 거부하는 샤이보수(5%)의 지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추정
- 또한 홍준표 후보의 득표(24.0%)는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에 찬성한 투표자의 비율(25.3%)과 유사
- 대선후보 TV토론이후 안철수 후보 지지도의 하락과 함께 양강구도가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확실한 1강구도로 전환, '어대문'이 자명해지자 '홍찍문'이 소멸. 태극기 부동층(15%)을 모두 흡수
- 진보정당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교체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소신투표한 것처럼 박근혜 사면복권에 찬성하는 '태극기 부동층'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찾아 귀성하는 '역사표론'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4. 5.9 대선의 공식

❑ 나라다운 나라 + 든든한 대통령 = 성공하는 정부

❍ '나라다운 나라'
- 5.9 대선의 기본 성격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혁명'에 이은 재보궐 선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빅 퀘스천에 '나라다운 나라'로 응답한 '촛불민심'의 대변자
- 성공하는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 '협치'와 '분권'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대통합하는 대한민국의 정상화. '국민통합형 적폐청산'
- 박근혜 게이트로 상징되는 적폐는 무자격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가능케했던 '묻지마' 진영론의 대치와 '적자생존(대통령 말씀을 잘

받아 적어야 생존한다)'을 강요했던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 반지'. 협치와 분권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대적 과제

- 분노의 이슈에 집착하면서 극단적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반사이익의 정치로 회귀한다면 보수 vs 진보 또는 좌파 vs 우파의 진영이 복구되고 정치혐오 유발, 이로 인해 정치를 의전으로 대체하는 '박근혜의 신화'가 부활할 가능성
- 적폐청산의 목표는 대결의 정치, 대치의 시대에서 타협의 정치, 협치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 성공하는 정부의 길은 최대 적폐, 익숙해서 편안한 대치를 청산하고 협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치다운 정치'를 복원하는 담대한 개혁의 길
- 일상적 스몰딜과 더불어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빅딜을 통해 생활인의 절박한 삶의 문제,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실패한 대통령을 양산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필수. 국가원수와 행정수반,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수평적 분권이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분권이든 분권형 개헌을 초당적으로 추진. 초당적 개헌의 과정이 협치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모델이 되어야

❍ '든든한 대통령'

- 5.9 대선의 특징은 '민주당 정부'의 출현. 민주화이후 최초로 민주당 단독집권 시대 개막. 민주당은 촛불 부동층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준비된 개혁정당
-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의 든든한 대통령 자임. 문재인 후보의 팀플레이가 안철수 후보의 개인플레이를 압도. 문재인 후보는 유능한 인재풀과 정리된 컨텐츠를 통해 '준비된 대통령'임을 증명
- 민주당의 전통적 약점으로 간주된 안보 이슈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군·경찰·국정원 출신의 '천군만마 1000인 지지 선언' 등을 통해 정면돌파, 든든한 안보 대통령임을 실증

※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도 없는 이런 가짜 안보세력과 당연히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 민주당 창당 이래 이렇게 많은 장군과 국방

안보 전문가들이 지지를 선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국방안보 역대 최강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안보 최고당입니다”(문재인 후보, 2017. 4. 26)

❍ 든든한 대통령 이미지

(표3) 대선후보 이미지 비교

(단위 : %)

	위기대처	신뢰	변화·쇄신	공감	남북관계	경제	사회복지
문재인	39	32	26	25	38	24	26
홍준표	18	14	11	14	18	11	10
안철수	10	18	24	13	9	17	12

자료 : 한국갤럽 5월 1주차 여론조사(D-1주)

- 문재인 후보는 위기대처, 신뢰, 변화쇄신, 공감의 후보 이미지와 남북관계 경제, 사회복지 이슈 전부문에서 경쟁후보를 앞서는 든든한 대통령 이미지
- 특히 위기대처 능력과 신뢰 이미지, 공감 능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했고, 남북관계, 경제, 사회복지 전이슈에서 경쟁 후보를 압도하는 준비된 대통령
- 이는 문재인 후보로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었던 3월 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50%로 호감도 47%를 넘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호감도가 77%로 압도적이었지만 민주당 비지지층에서는 비호감도가 75%로 압도적인 극단적 양극화 후보였다는 점에서 상전벽해
- 이는 문재인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운동 과정에서 적폐청산에서 대통합으로 노선을 전환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든든한 대통령’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증했기 때문

- 민주당은 ‘자연스런 집권당’의 면모. 촛불혁명의 전반전에 민주당 트리오의 지지도 합이 60%에 이르고, 본격적 대선운동의 후반전에도 40% 유지.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도가 소속 정당의 지지도를 사실상 한번도 앞서지 못한 적은 유례가 없었음
- 자연스런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은 스몰딜이 일상화되고 빅딜로 사회를 크게 바꾸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 ‘오직 민생’, ‘오직 국익’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중심 정당’이 되어야
- 촛불혁명에 동감, 정치적 고향을 떠났지만 아직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촛불 부동층이 안주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시 고향을 찾은 태극기 부동층의 공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각양각색의 온 국민을 대표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패치워크 정당'이 되어야

- 성공하는 정부의 든든한 대통령은 자연스런 집권당의 대통령이자 국민 모두의 대통령. 극단적 양자택일을 강요, 민생과 안보 이슈를 정쟁화하는 '문제유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존망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탄한 경제, 튼튼한 안보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문제풀이 대통령'

○ 더불어 민주당 정부, 국민 모두의 정부

- "이렇게 우리 전당이 똘똘 뭉쳐 선거 치른걸 우리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길이길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제가 여러번 선거기간동안 강조해 말씀드렸듯이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 정부'입니다." (출구조사 발표이후 문재인 후보 연설)
-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줍시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서거 8주기 추도사)